

ACTS29 성령집회 2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에스겔 36:22~31)

하용조 목사 / 2004년 10월 12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물질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과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살아있는 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책임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으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더럽혀진 이름과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난 백성,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이었지만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백성이라 칭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흠으며 열방에 헤쳐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갚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완전히 죽이지 않을 것이며, 수치와 수모를 당하되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요즘 한국 땅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세계는 결코 나아지지 않았 습니다. 각지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흥했던 한국교회와 왜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비탄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실수와 허물을, 우리 민족의 고난의 이유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

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과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22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의 손길을 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한 관심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찌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크리스천과 교회가 잘못하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 집니다.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편다고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회복시키십니까? 세속에 빠져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는 교회와 크리스천을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방법은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고토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흩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로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는 맑은 물로 정결케 해 주십니다. 우리의 세속적 욕망과 가치관을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깨끗케 하길 원하십니다. 우상에 지배당하고 있는 내 마음의 그릇에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새 영과 풍성한 복을 주리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찌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째로 바꿔 주십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부어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은혜라는 깨달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뜻을 따라 가면서 자신의 허물을 벗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교회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옥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풍성한 소산이 넘쳐 다시는 기근으로 고통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와 죄악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함량미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째로 바꿔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불신, 죄악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고 그 덕이 트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도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최문경pink1969@onnuri.or.kr

* 출처 : 온누리신문